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4월 생산은 전월대비 1.1% 감소(전년동월대비 8.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8.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7%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3.0%).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8.4%).

◆ 2021년 4월 소비는 전월대비 2.3%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2.4%),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7%)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8.6%).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0%)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5.0%)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6.8%).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8%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0%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4월	3월p	4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2.0	0.9 (5.7)	-1.1 (8.8)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5.7	-0.9 (4.4)	-1.6(12.4)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6.1	-0.9 (4.5)	-1.7(13.0)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2.1	0.3(-5.7)	-0.8(-1.8)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8	1.3(7.8)	0.4(8.4)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4.7	2.3(10.9)	2.3 (8.6)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1.8	0.0 (9.5)	3.5(16.8)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2	0.2 (2.3)	0.1 (2.6)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 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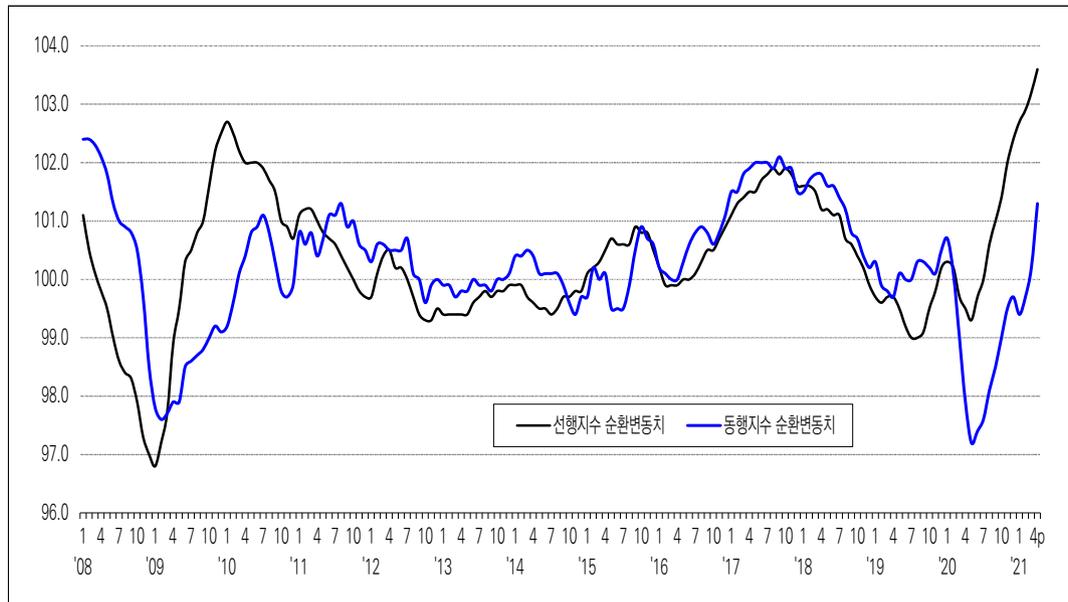
○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100)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9%), 음식·숙박(0.2%), 오락·문화(0.3%), 의류·신발(0.2%), 기타 상품·서비스(0.2%), 교육(0.1%)은 상승하고, 교통, 주류·담배, 보건의 변동 없으며, 통신(-0.4%), 식료품·비주류음료(-0.5%)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음.

◆ 2021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1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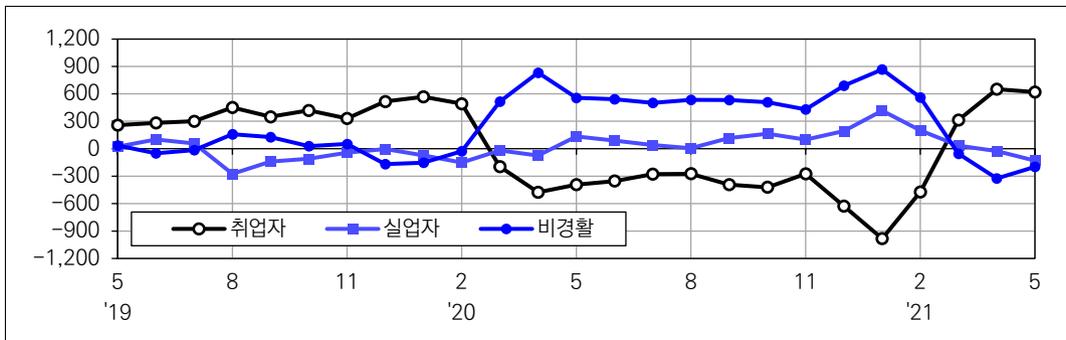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는 증가

○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1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전월대비¹⁾ 10만 1천 명 증가).

- (산업별) 5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피보험자도 증가 추세를 이어 감. 건설업도 큰 변화 없이 증가를 지속함. 도소매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음식·숙박업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사업시설관리는 임금근로자가 개선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보건복지는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령별) 5월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30대는 공공행정 등에서 개선되며 감소폭이 축소됨. 40대와 50대는 전월대비 실업자는 증가하고 비경활은 감소함.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 전월대비로는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5월은 상용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일용직은 감소 전환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폭도 확대됨.
- (일시휴직자) 5월 일시휴직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9만 8천 명 감소함. 상용·임시직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에서 주로 감소함.
- (실업자) 5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됨. 20~30대에서 감소 전환됨. 40~50대는 전월대비 실업자가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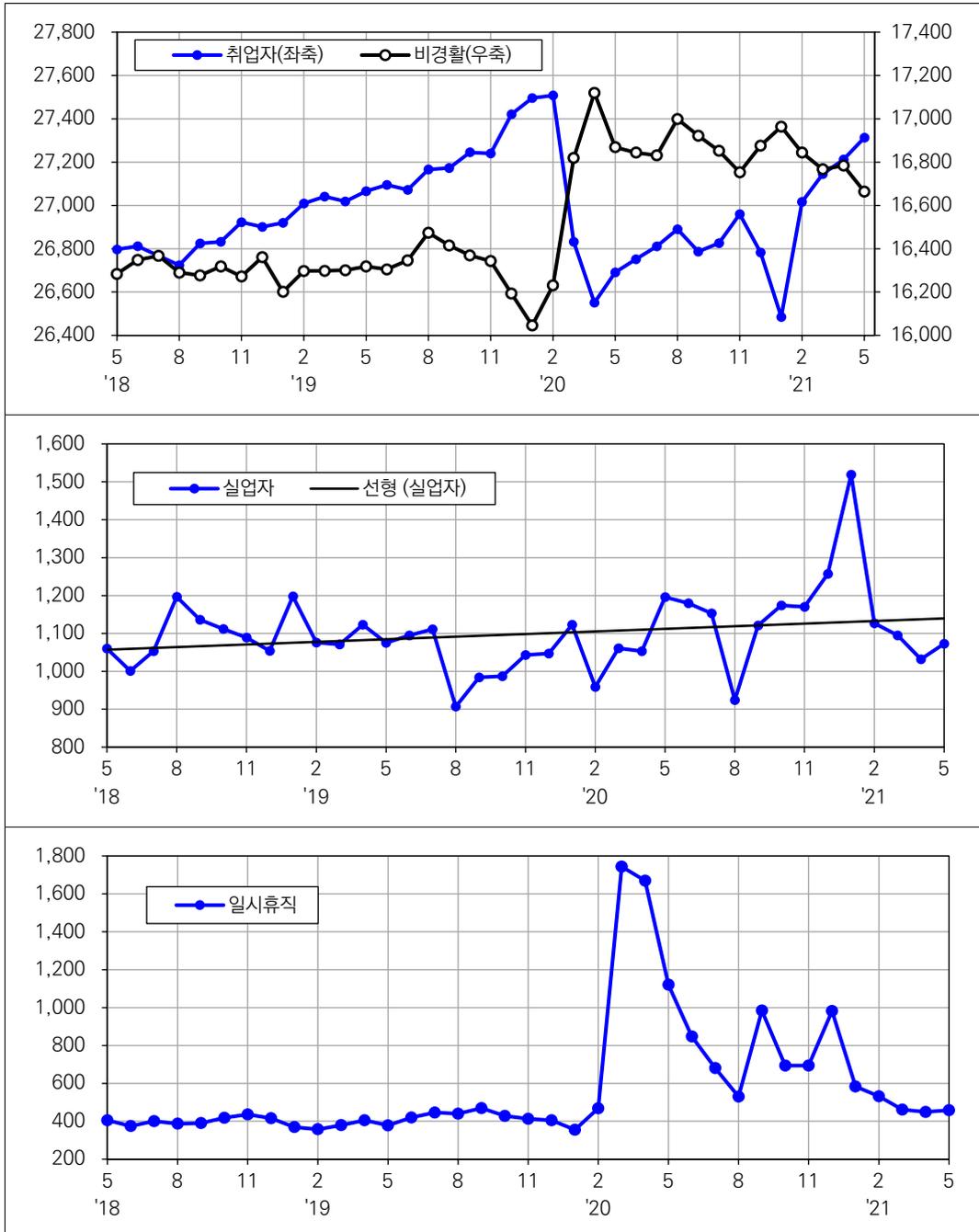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5월은 전년동월대비 30~40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 20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 실업자 수는 감소 전환함.
 - 30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공공행정, 보건복지에서 개선이 나타나며 감소폭이 축소됨.
 - 40~50대는 전월대비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함.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지만 전월대비로는 증가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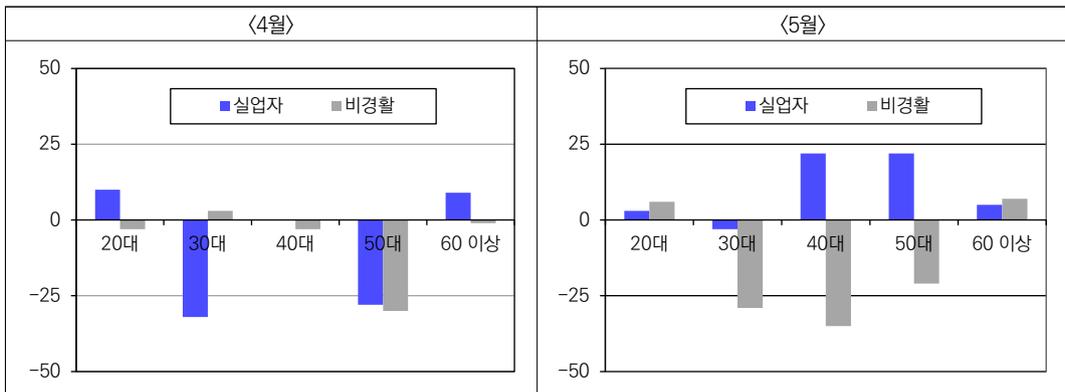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18	47	29	(-1)	130	132	109	(-9)	-170	-98	-69	(20)
실업자	-2	-1	6	(6)	25	52	-30	(3)	38	1	-38	(-3)
비경황	-175	-202	-189	(-18)	-133	-157	-60	(6)	-19	-53	-45	(-29)
실업률	-2.0	-3.4	1.4	(2.5)	0.3	0.9	-1.0	(0.0)	0.8	0.1	-0.6	(-0.1)
고용률	1.2	2.4	1.7	(0.0)	1.8	1.8	1.6	(-0.2)	-0.8	0.2	0.6	(0.5)
	40대				50대				60세 이상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85	-12	-6	(6)	13	113	100	(-2)	408	469	455	(44)
실업자	-2	-11	-5	(22)	-10	-58	-54	(22)	-15	-9	-9	(4)
비경황	17	-49	-64	(-35)	-15	-69	-62	(-21)	270	207	223	(7)
실업률	0.0	-0.2	0.0	(0.3)	-0.1	-0.9	-0.8	(0.3)	-0.6	-0.5	-0.4	(0.1)
고용률	-0.4	0.6	0.6	(0.1)	0.3	1.4	1.3	(0.0)	1.1	1.5	1.4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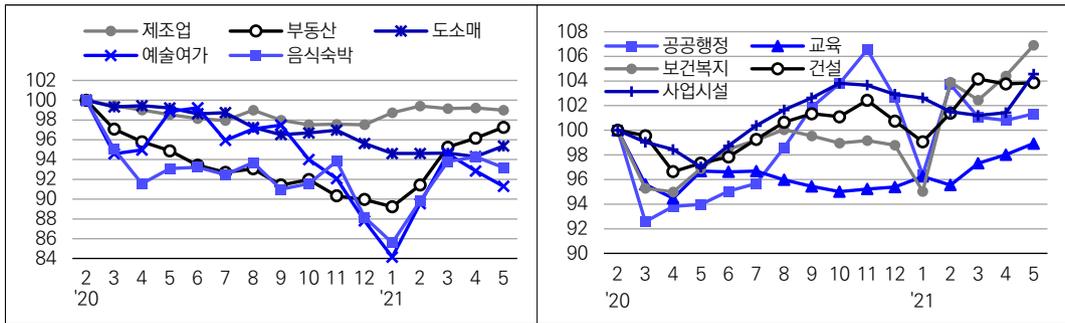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예술여가 및 음식숙박은 회복에서 감소로 전환됨. 제조업, 도·소매, 건설, 공공행정은 정체 상태임. 부동산, 교육, 보건복지, 사업시설은 회복하는 추세임.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26	-3	-3	-89	-39	-14	-142	-9.2
광업	-4	-2	-1	-1	0	0	-1	-7.7
제조업	-11	9	19	-12	3	-10	-19	-0.4
전기·가스·증기	0	-1	-5	0	-7	2	-5	-6.9
수도·원료재생	18	19	20	5	5	1	11	7.0
건설업	92	141	132	56	-8	2	50	2.4
도매 및 소매업	-168	-182	-136	1	-12	38	27	0.8
운수 및 창고업	72	107	91	23	13	3	39	2.6
숙박 및 음식점업	-28	61	4	91	11	-25	77	3.7
정보통신업	31	41	29	33	16	0	49	5.8
금융 및 보험업	22	27	25	9	9	-4	14	1.8
부동산업	-10	1	14	21	5	6	32	6.4
전문·과학·기술	65	64	58	20	12	0	32	2.7
사업시설관리지원	28	39	101	-4	3	42	41	3.0
공공행정·사회보장	94	80	83	-30	-3	6	-27	-2.3
교육서비스업	32	66	42	33	13	17	63	3.5
보건 및 사회복지	171	224	241	-35	47	59	71	2.9
예술·스포츠·여가	1	-11	-39	26	-9	-8	9	1.9
협회·단체·수리·기타	-71	-30	-45	-8	0	6	-2	-0.2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4	2	-5	-4	-1	-2	-7	-7.3
국제 및 외국기관	2	-1	-4	0	-2	0	-2	-1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5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음식숙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개선됨. 제조업에서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고 건설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임시직은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에서 감소 전환함.
-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예술스포츠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208	311	355	96	-38	54	112	0.8
임시직	206	379	307	157	92	-13	236	5.3
일용직	41	38	-20	68	-55	-4	9	0.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4	-65	-67	-10	24	-17	-3	-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	27	53	-43	6	23	-14	-0.3
무급가족종사자	-60	-39	-10	-31	1	17	-13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15	-9	-7	4	7	2	6	2	-3	-2	1	-7	3	9	12
제조업	67	69	46	-38	-38	-30	-7	-18	-7	-27	-11	-10	-4	2	8
건설업	41	46	59	-6	7	-13	51	74	61	2	5	14	1	4	4
도소매	-75	-106	-63	11	21	20	-12	-25	-37	-24	-16	-17	-37	-24	-5
운수창고	-11	23	38	14	29	13	17	12	13	10	8	2	41	34	25
음식숙박	-6	4	-49	-25	31	37	10	7	-17	-2	6	-2	0	9	23
정보통신	33	47	39	15	12	8	-5	-3	0	-2	-1	-2	-8	-13	-17
금융보험	5	-12	-2	11	24	20	-1	0	-3	1	2	1	7	14	9
부동산	17	12	14	-15	2	5	-1	4	0	-11	-15	-10	10	10	13
전문과학기술	50	45	60	9	25	10	-2	0	2	2	-6	-7	10	5	-1
사업관리지원	38	60	83	-6	-19	-6	0	0	13	-14	-14	-6	6	7	14
공공행정	39	46	67	54	42	19	1	-8	-3	0	0	0	0	0	0
교육서비스	8	14	5	43	67	62	1	0	-1	-3	-3	-3	-31	-25	-29
보건복지	35	65	87	143	168	168	-2	-1	-9	-4	-3	-2	0	-3	-4
예술스포츠	14	5	1	17	15	9	-22	-15	-29	-12	-11	-10	5	-1	-6
협회단체	-44	-11	-28	-30	-9	-5	8	5	-5	-7	-8	-8	9	-2	3
가구 내 고용	-1	1	1	12	4	-7	-2	-1	4	0	0	-1	-4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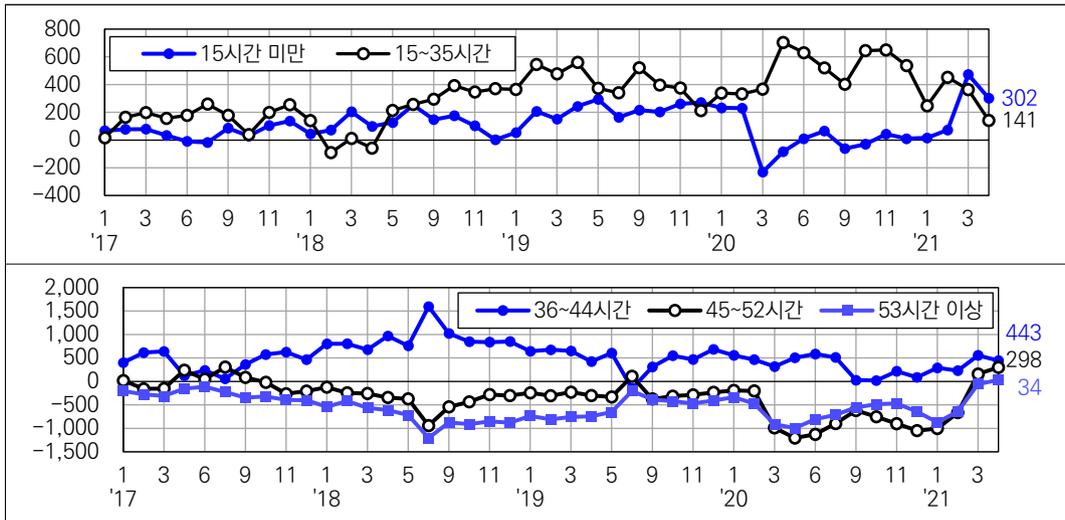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5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증가함.

－ 이는 일시휴직자가 전년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2.3%포인트 감소)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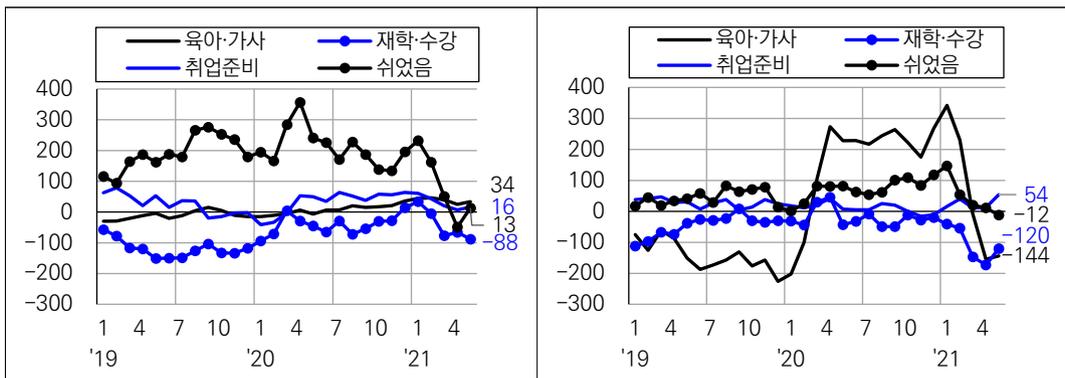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9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4월 -32만 4천 명)됨.

－ 남성은 ‘쉬었음’이 증가 전환됨. 여성은 ‘재학·수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취업준비’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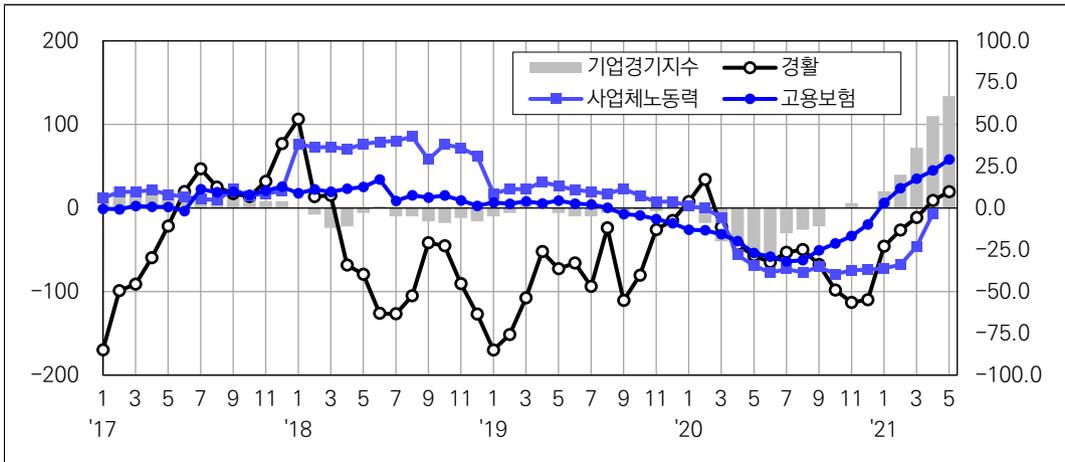
◆ 제조업은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유지

○ 2021년 5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만 9천 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경기지수는 증가폭의 확대가 지속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피보험자는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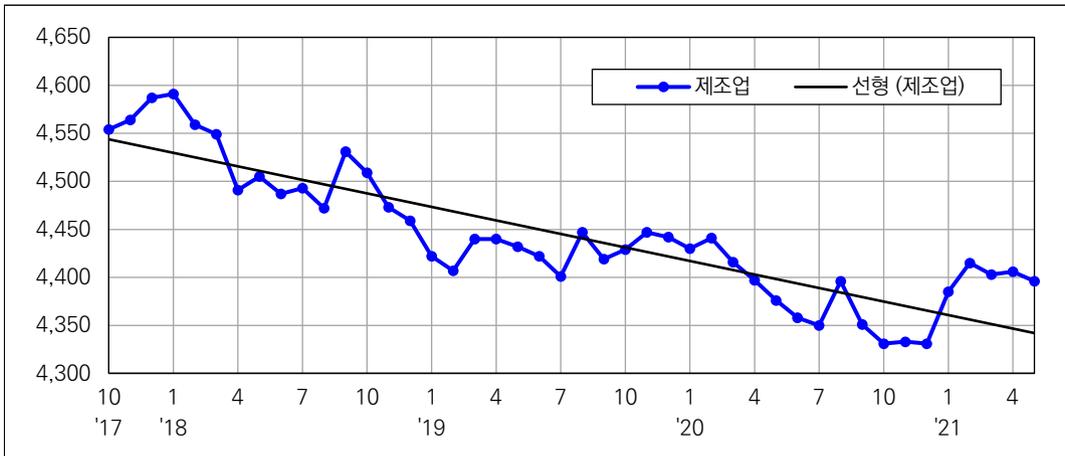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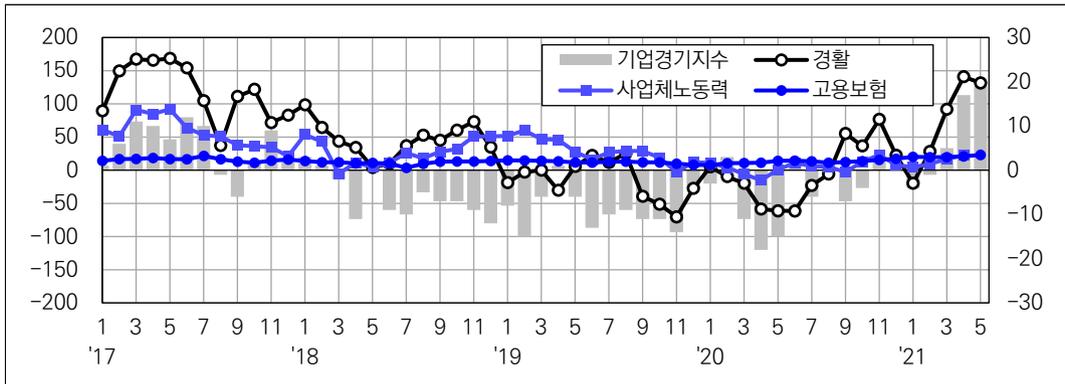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5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를 이어 감.

- 기업경기지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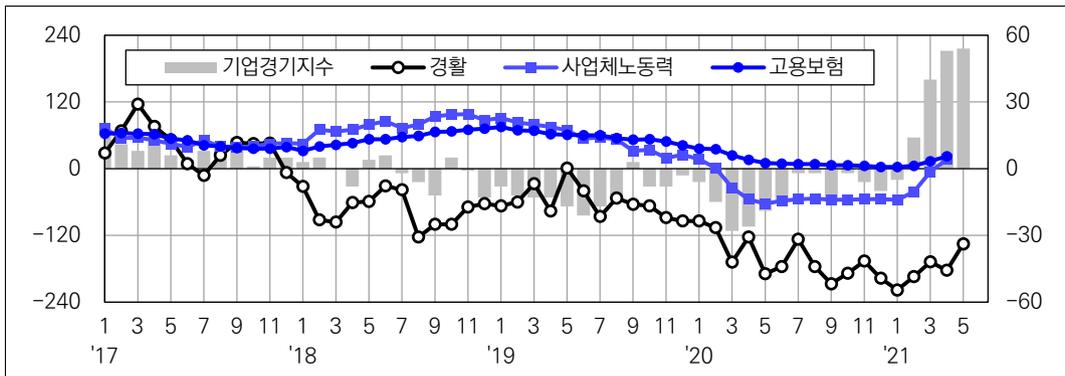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5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하였지만 회복 추세는 유지함.

- (도소매)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및 20대, 40~5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숙박음식) 전년동월대비 상용·일용직이 감소 전환하며 전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사업시설관리)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개선됨. 연령별로 20대와 50대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40대는 증가 전환함.
- (보건사회복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과 40대에서 증가폭 확대가 지속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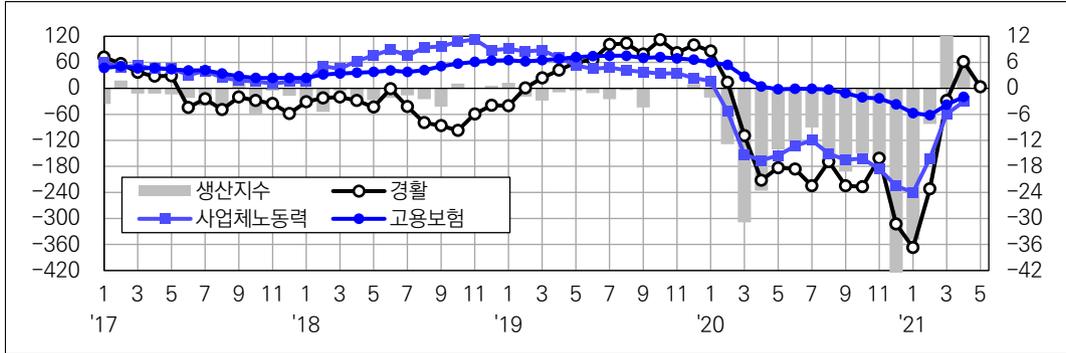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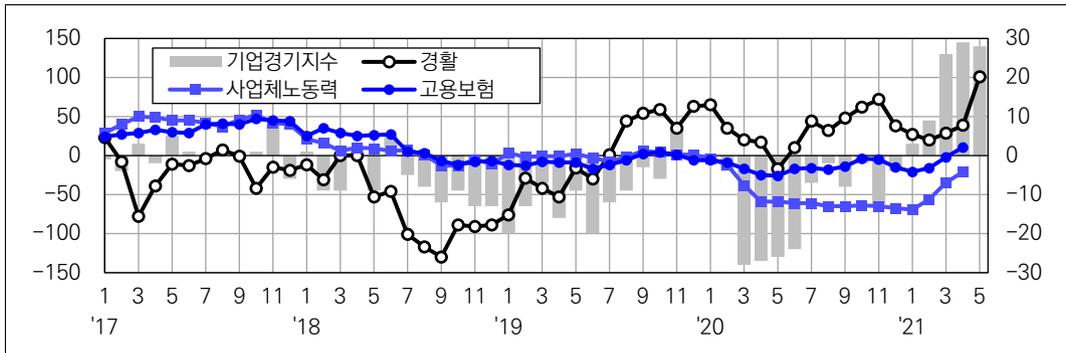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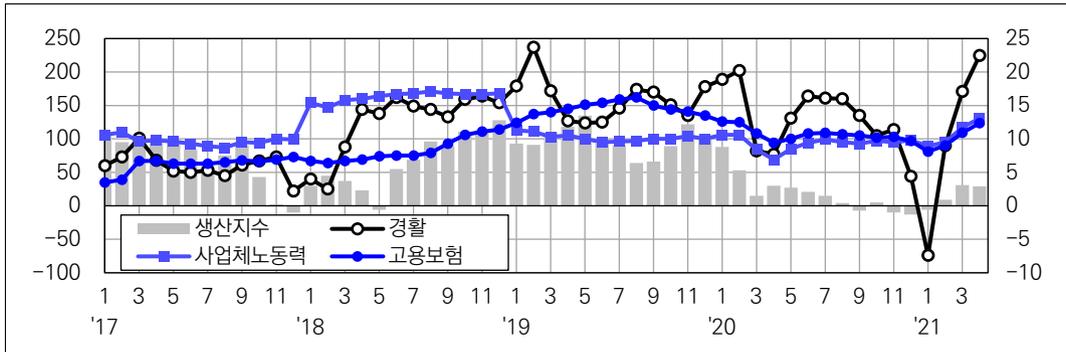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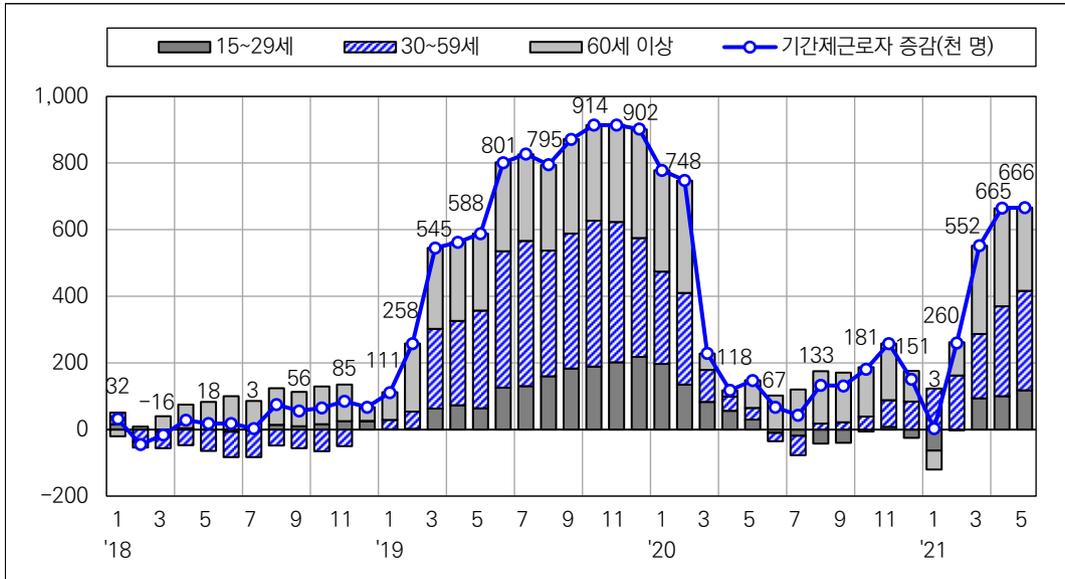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을 유지함. 기간제는 주로 상용직과 임시직 및 30세 이상에서 증가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신종사상 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21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 6천 원(3.8%)임.
 - 2021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9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9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전년 기저효과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의 특별급여 증가 등의 영향임.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둔화는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3월에는 건설업 임금상승폭 둔화와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3월	3월	1~3월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657 (-0.1)	3,473 (2.3)	3,810 (4.2)	3,606 (3.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856 (-0.7)	3,641 (1.1)	3,795 (4.2)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76 (2.4)	3,058 (1.9)	3,160 (2.7)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8 (1.5)	199 (-2.9)	200 (1.2)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582 (-14.9)	384 (-2.9)	659 (13.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579 (7.2)	1,660 (11.1)	1,660 (5.1)	1,694 (2.1)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5.5 (1.2)	105.5 (1.0)	107.2 (1.1)	107.2 (1.5)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1.2	1.2	3.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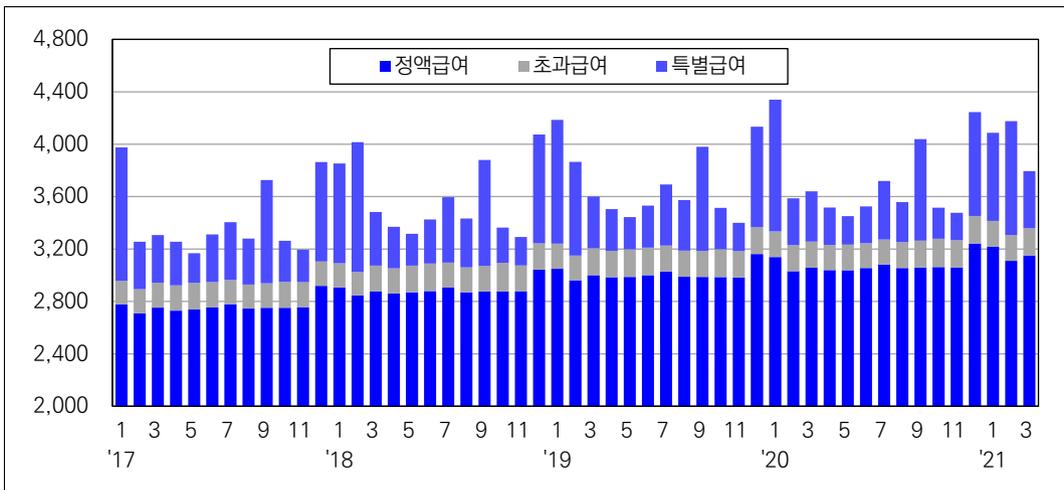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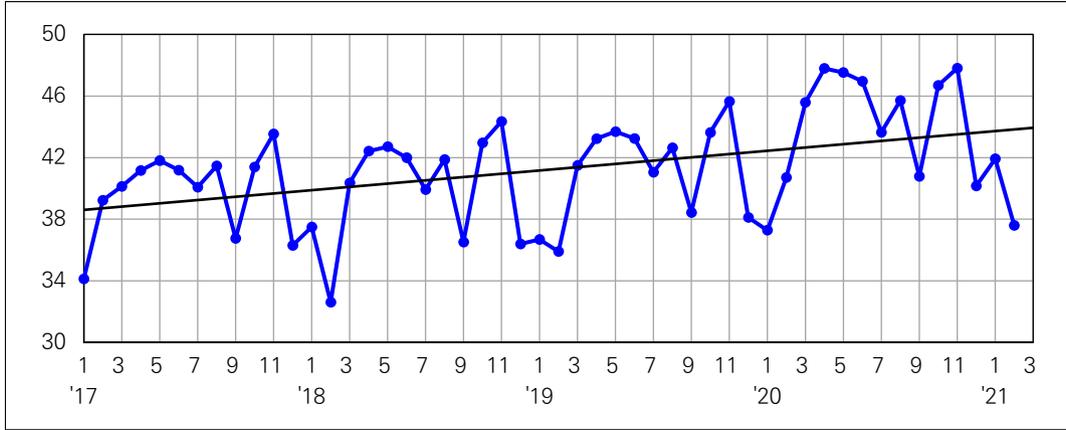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 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3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 증가

○ 2021년 3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5%, 4.3%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93 (1.7)	3,246 (1.6)	3,152 (2.5)	3,352 (3.3)	3,264 (3.5)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3.7)	3,377(1.2)	3,431(1.0)	3,313(1.5)	3,545(3.3)	3,445(4.0)
	정액급여	2,723(4.7)	2,841(4.3)	2,915(2.6)	2,905(2.7)	2,885(2.2)	2,986(2.8)	2,975(3.1)
	초과급여	172(4.8)	175(2.0)	171(-2.4)	169(0.0)	171(-4.1)	170(0.2)	177(3.3)
	특별급여	322(1.9)	322(-0.2)	292(-9.4)	357(-10.6)	256(-2.5)	388(8.8)	294(14.8)
	비상용임금총액	1,422(5.3)	1,505(5.8)	1,615(7.3)	1,554(6.3)	1,641(9.5)	1,629(4.8)	1,673(2.0)
대규모	소 계	5,305(6.5)	5,356(1.0)	5,242(-2.1)	5,794(-5.7)	5,116(0.3)	6,132(5.8)	5,337(4.3)
	상용임금총액	5,474(6.4)	5,492(0.3)	5,335(-2.8)	5,901(-6.4)	5,201(-1.3)	6,242(5.8)	5,432(4.4)
	정액급여	3,735(3.8)	3,843(2.9)	3,847(0.1)	3,900(0.5)	3,881(0.0)	3,971(1.8)	3,984(2.6)
	초과급여	324(0.0)	335(3.5)	340(1.4)	336(4.0)	328(-1.4)	344(2.4)	343(4.5)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665(-20.7)	992(-6.1)	1,927(15.7)	1,105(11.4)
	비상용임금총액	1,509(7.8)	1,712(13.4)	2,029(18.5)	2,055(22.9)	2,010(39.7)	2,248(9.4)	2,08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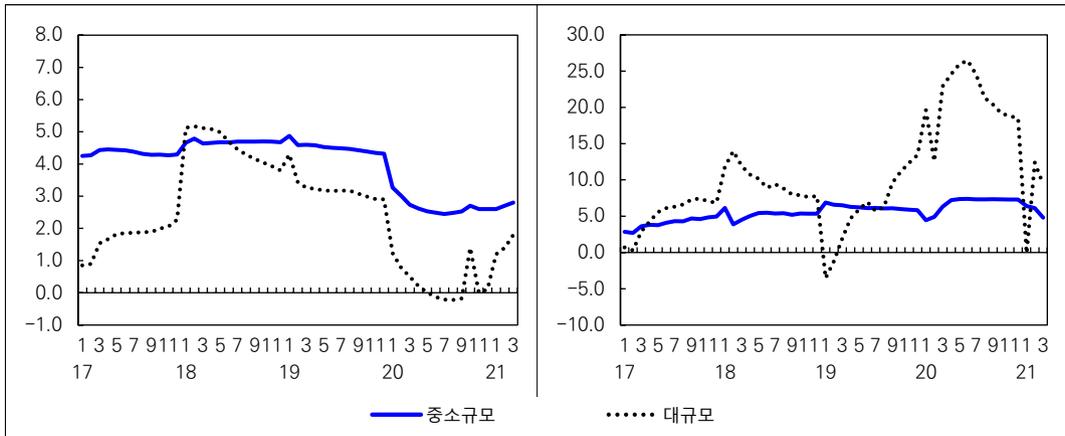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4.4% 증가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서 특별급여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를 견인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0%, 3.7%이나 상승폭은 둔화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3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교육서비스업(-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증가

○ 2021년 3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30만 5천 원)이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780만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3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 및 보험업(12.3%), 정보통신업(10.9%)은 평균 상승률(3.8%)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상승폭을 기록함.
- 2021년 3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4천 원)이며,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5만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68만 1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60만 6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657	3,473	3,810 (4.2)	3,606 (3.8)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301	4,253	4,407 (2.5)	4,345 (2.2)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4,222	3,817	4,464 (5.7)	3,937 (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574	8,090	6,704 (2.0)	8,305 (2.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812	3,777	4,040 (6.0)	4,045 (7.1)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92	2,999	3,107 (0.5)	3,022 (0.8)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527	3,367	3,632 (3.0)	3,491 (3.7)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530	3,251	3,721 (5.4)	3,411 (4.9)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911	1,827	1,895(-0.9)	1,864 (2.0)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930	4,801	5,237 (6.2)	5,322(10.9)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7,185	6,947	7,976(11.0)	7,800(12.3)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61	2,764	2,981 (4.2)	2,893 (4.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5,003	4,734	5,080 (1.5)	4,837 (2.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427	2,383	2,497 (2.9)	2,450 (2.8)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626	3,488	3,578(-1.3)	3,424(-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69	2,867	3,011 (1.4)	2,918 (1.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966	2,931	3,013 (1.6)	2,892(-1.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74	2,527	2,729 (6.0)	2,681 (6.1)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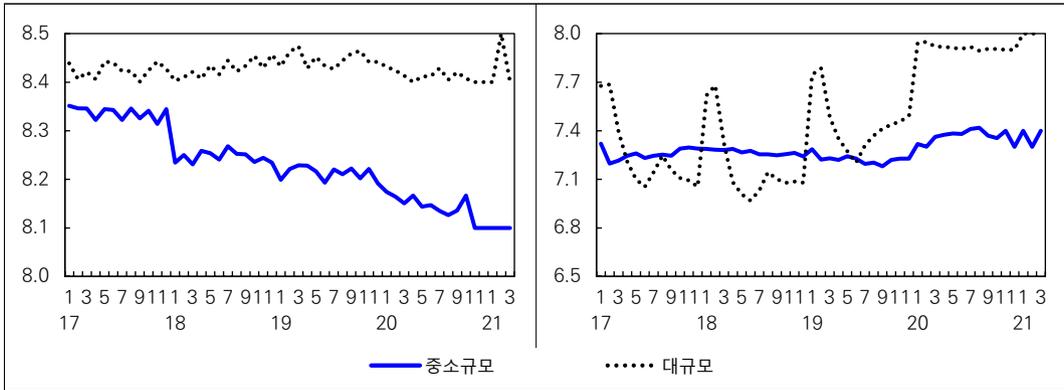
◆ 2021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22일로 전년동월과 동일)

- 2021년 3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시간 증가함.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나 근로일수가 전년동월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전년동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기저효과로 보임.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유지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전년동월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1년 3월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2시간으로 0.8시간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은 97.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는 130.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60.5(1.5)	167.9(4.1)	155.7(-3.0)	168.2(0.2)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7.9(1.5)	175.5(3.7)	162.5(-3.2)	176.2(0.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60.1(2.0)	167.6(4.6)	154.9(-3.2)	168.3(0.4)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7(-9.4)	7.9(-11.2)	7.6(-1.3)	7.9(0.0)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3.5(-1.3)	96.5(1.8)	94.7(1.3)	97.7(1.2)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3.9(3.0)	172.0(6.4)	159.3(-2.8)	171.2(-0.5)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4.9(2.4)	173.0(4.9)	160.2(-2.9)	172.4(-0.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3.9(2.7)	162.3(5.9)	149.2(-3.1)	161.5(-0.5)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1.0(-1.8)	10.7(-7.0)	10.9(-0.9)	10.9(1.9)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7.5(21.7)	134.7(50.3)	128.3(0.6)	130.3(-3.3)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91.9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0.7시간)임

○ 2021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산업별로 증감 차이를 보임.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3%), 건설업(-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정보통신업(-1.0%), 제조업(-0.8%), 금융 및 보험업(-0.1%)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 외 다른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특히 교육서비스업(5.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9%) 부문에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61.1	168.6	156.3(-3.0)	168.7(0.1)
광업	176.6(0.5)	175.7(-0.5)	181.2	178.7	189.9	176.2(-1.4)	191.9(1.1)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4.4	185.0	169.5(-2.8)	183.6(-0.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1.4	162.5	157.1(-2.7)	157.1(-3.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4.9	184.0	172.7(-1.3)	185.0(0.5)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7.7	144.3	132.5(-3.8)	140.7(-2.5)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3.6	170.8	159.3(-2.6)	171.4(0.4)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60.2	162.9	155.4(-3.0)	166.5(2.2)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50.4	150.0	142.2(-5.5)	152.1(1.4)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4.7	174.6	159.4(-3.2)	172.8(-1.0)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3.1	173.2	158.6(-2.8)	173.0(-0.1)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2.1	179.3	168.0(-2.4)	179.8(0.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2.9	173.2	157.5(-3.3)	171.0(-1.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2.4	169.1	157.9(-2.8)	170.4(0.8)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2.9	137.8	132.2(-0.5)	145.3(5.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7.9	163.6	153.2(-3.0)	165.9(1.4)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9.3	151.7	143.0(-4.2)	159.2(4.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9.1	168.0	157.4(-1.1)	169.0(0.6)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0건
 - －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7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5월 조정성립률 0.0%
 - － 5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0.0%에 비해 20.0%포인트 적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5.	10	6	0	0	0	6	1	5	0	0	7	0.0%
2020. 5.	7	5	1	0	1	4	0	4	0	0	3	2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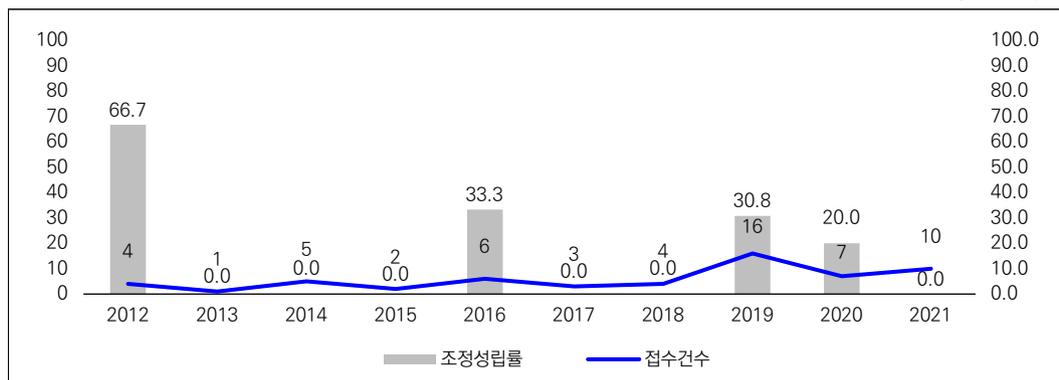
<표 2> 2012~21년 5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5.	2013. 5.	2014. 5.	2015. 5.	2016. 5.	2017. 5.	2018. 5.	2019. 5.	2020. 5.	2021. 5.
접수건수	4	1	5	2	6	3	4	16	7	10
조정성립률	66.7	0.0	0.0	0.0	33.3	0.0	0.0	30.8	20.0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5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66건
 - 5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208건)보다 42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1.8%(5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8.2%(116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5.	166	170	35	19	74	12	16	14	497
2020. 5.	208	211	42	5	102	19	22	21	50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4건
 - 5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0건)보다 6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1.1%(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8.9%(8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5.	4	9	1	0	5	1	2	0	8
2020. 5.	10	9	3	0	5	0	1	0	1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쿠팡 물류센터 노조 출범

- 유급 휴게시간·적정 인력 확충 등 요구
 -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노조 측은 쿠광에 ▲2시간마다 20분씩 유급 휴게시간 부여와 휴게 공간 및 적정 인력 확충 ▲사실관계확인서 즉각 폐지 및 노조 참여 보장 ▲폭염·혹한 시 시간당 휴식시간 보장 ▲쪼개기 계약 아닌 정규직화 원칙 ▲공정에 맞는 임금 지급 ▲기본급 표준화 및 인상·생활임금 도입 등을 요구하였음.

◆ 인천공항 비정규직-정규직 합친 ‘인국공노동조합’ 출범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조 통합
 - 지난 6월 9일 정규직 노조인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기호, 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지부)과 비정규직 노조 중 하나인 공공연맹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위원장 공인수, 이하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지부)이 통합하였음.
 - 형태는 인국공노조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각 노조가 지부로 가입하는 형식이고 각 노조의 상급단체는 변경하지 않기로 했음.
 -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법에 대한 견해가 비슷했기 때문임. 인천공항에서 짐을 수색하는 1,800여 명의 보안검색노동자는 3개 하청업체로 나뉘어 고용돼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조합도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으로 세 개로 나뉘어 있음.
 -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지부와 통합하는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지부는 정규직 전환의 취지인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달성하려면 자회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두 노조는 총회를 통해 조직변경결의를 마친 상태이고 조합원 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지부가 1,500여 명,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지부가 110여 명임.

◆ SK하이닉스, 전문직도 별도 노조 설립

- 기술·사무직 노조 내 분회
 - 지난 6월 14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문직 노조가 ‘사무직지회의 분회’로 설립을 승인받았음.
 - SK하이닉스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이천·청주 생산직(전임직)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가 있음. 이 중 기술사무직 노조 내에 별도 전문직 노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임.
 - 현재 기술사무직 노조 조합원 1,659명 중 전문직은 50여 명 정도로 알려졌음. 전문직은 연봉과 근무 환경 등에서 다른 직군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며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였음.

◆ 경제4단체, '해고·실업자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실업자도 사업장 내 노조활동 가능
 - 지난 5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비중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해 ▲기본 원칙 및 대응 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음.
 -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개정법이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중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 출입 절차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달기,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 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장 내 활동 기준은 주체·목적이 정당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음.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함을 설명하였음. 정당성 기준으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장 여부 ▲규칙 준수 여부로 나뉘 볼 수 있음.

〈표 5〉 상황별 DOs & DON'Ts' 주요 내용

목표	DOs	DON'Ts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출입 전 통보 요청 (일시·장소·목적·인적 사항 등)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 • 구체적인 활동계획서 요구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거부 • 합리적 사유로 장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 • 상세한 목적·활동계획 요구
노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신고 내용 준수 요구 • 신고 내용 위반 시 중지·퇴거 • 예상치 못한 사업 지장 발생 시 설명 후 중지·퇴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활동 감시(촬영·녹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저지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거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 파업 6일 만에 운행 정상화
 - 지난 5월 31일 경남 거제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2개 회사인 삼화여객·세일교통의 노사가 30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거제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원가보상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음.
- 이들 회사 노사와 거제시는 이날 임금협상 합의안 조인식을 했음. 버스회사 노사와 거제시는 시내버스 직원 임금 2.62% 인상 보장, 체불임금·4대 보험 체납 해소, 2021년 표준운송원가(하루 버스 1대 운행에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동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보면, 거제 시내버스 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분까지 임금의 2.62% 인상을 보장받게 되고 사측은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거제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대비 95%인 재정지원금을 100%로 올리기로 함. 2020년 표준운송원가 지원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 적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 향후 보전하기로 했음.

◆ 쌍용차, 7월부터 2년 무급 휴직 실시

○ 52.14% 찬성표를 얻어 통과

- 지난 6월 14일 쌍용자동차는 기업 회생의 염원이 담긴 자구안 조인식을 열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협력을 다졌다고 밝혔음.
- 자구안에 대한 최종 서명과 함께 성공적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자는 의지를 다졌음. 이번 자구안은 쌍용차 노사가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14% 찬성표를 얻어 통과했음. 이를 통해 쌍용차는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음.
- 자구안의 주요 내용은 ▲무급 휴업 2년 ▲현재 시행 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무쟁의 협약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 ▲유휴자산 추가 매각(4개소) 등임.
- 무급 휴업의 세부 시행 방안은 6월 중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7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특히 무급 휴직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을 위해 라인 간 전환 배치를 통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임.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0여 명(자연 감소율 17%)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건설·제조업 사업장 절반서 '사망 사고 위험요인'

○ 추락·끼임 '최다'

- 지난 5월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2만 4,026개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 총 1만1,888개(49.5%)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등 사망 사고 다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 공단은 전국 1만 6,853개 건설업 현장을 점검해 7,951곳에서 1만 7,700건의 위험요인을 찾았음.
 - 계단, 개구부, 비계 등에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위험을 방치한 사례가 1만 4,664건이었고 부딪힘(704건), 화재·폭발(455건), 끼임(296건)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위험요인도 다수 적발했음.
 - 제조업의 경우 현장 점검 대상 7,173곳 가운데 3,937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8,102건을 발견했음.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기 등 위험 설비에 방호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2,942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추락 위험(1,872건), 부딪힘(1,277건), 화재·폭발(513건) 순이었음.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패트롤 현장 점검 횟수를 기존 6만 회에서 올해 7만 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 차량을 108대에서 404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공단은 산재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방지하는 917개 사업장에 대해 정부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음.

◆ ‘감정노동’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8명 우울증 위험

○ 1일 평균 휴식시간은 ‘20분 미만’

- 지난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노동자 노동 건강 실태 발표 및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가족위생방역본부, 철도공사 등의 콜센터 노동자 1,39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0.3%가 우울증 위험군(우울증 평가 척도 PHQ-2 기준)에 속했음. 응답자의 1일 평균 휴식시간은 ‘2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았고, ‘5분 미만’도 20.7%에 이르렀음. 이어 ‘30분 미만’(20.1%), ‘1시간 미만’(17.5%), ‘10분 미만’(16.5%) 순이었음.
- 업무 시작 후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72%로 가장 많았음. 귀(41.4%), 소화기계(37.5%), 호흡기계(34.1%), 신경정신계(29.9%), 비뇨기계(28.6%), 성대(27.2%) 질환 등이 뒤를 이었음. 신체 부위별로는 어깨와 목의 통증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각각 88.1%, 83.5%로 조사됐음.
- 응답자들은 고객이나 원청으로부터의 폭언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90.6%에 이르렀고, ‘인격 무시 발언’(88.1%), ‘욕

설'(85%), '성희롱'(22.5%) 등이 뒤를 이었음. 원청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은 37.4%,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응답은 31.4%로 관리자나 동료에게 이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음.

◆ 20대 강박증 급증

○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

- 지난 6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19년 강박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강박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만 4,446명에서 3만 152명으로 증가했음. 연평균 5.4%씩 증가함.
- 진료 인원수는 2019년 기준 남성이 1만 7,367명으로 여성(1만 2,785명)보다 많았음. 하지만 5년 사이 증가율은 여성이 26%로 남성(21.4%)을 앞질렀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30대(20.6%), 40대(16.1%)가 뒤를 이었음. 20대 비중은 2015년 25.3%에서 2016년 26.5%, 2017년 26.9%, 2018년 27.4%, 2019년 28.3%로 꾸준히 늘고 있음.
-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에서도 20대가 122.8명으로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많은 30대(84.8명)의 약 1.5배에 달했음. 여기서도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강박장애 진료 인원이 5년 새 23.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증가율은 19.3%에 그쳤음. 최근 5년간 강박장애 총진료비 증가율도 여성이 52.7%로 남성(43.4%)보다 높았음.
- 강박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정신장애임. 가장 흔한 유형은 '오염-청결 강박'으로 손 등을 반복적으로 씻는 증상이 나타남. 이 외에도 문이나 밸브가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 강박', 물건을 바르게 배열하는 '대칭-정렬 강박' 등이 있음.

◆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시행

○ 초·중·고·특급 4단계 기능등급으로 구성

- 지난 5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음.
-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함.
- 현장 근무 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 이수 시간, 포상 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 연수로 변환해 환산 경력에 포함함.

- 2021년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2022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
- 승급교육의 경우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 → 중급, 중 → 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 고 → 특급교육은 관리 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함.
-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또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 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 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 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 충남도 탈석탄 기금 100억 원 조성

○ 충남도, 보령·당진·서천·태안·발전 3사와 기금 조성 업무협약

- 지난 6월 8일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음.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020년 12월 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앞두고 충남도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국내 최초 사례임.
- 기금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 내년 15억 원, 202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5억 원씩 순차적으로 조성함. 출연 비율은 도 30%, 시·군과 발전3사 10%씩임.
- 기금은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 등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함.
- 또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사업, 발전 설비 해체 및 부지 복원·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영향 분석 등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함. 기금 운용은 충남도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